“한국 전통차(茶) 힐링 문화 핵심으로”

한국차문화학회, 6월 1일 차 문화 학술대회

최근 힐링열풍과 함께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차 문화의 발전방향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한국차문화학회(회장 조기정, 목포대 교수)는 6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차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5회째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조기종 회장은 ‘차(茶) 업계의 현황 문제점과 발전 방안’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차문화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조 회장이 지적한 문제로는 △지역·조직간 협력 리더십 미흡 △차생활의 형식화, 고급화, 사치화 △차 산업의 중요가치 인식부족 △다례 체험예절 인성교육 확산 미흡 △전통 차 생활 문화보급 미흡 △산업계와의 소통 부재 △차 문화 및 관광 상품 개발 등이다.

조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한국 차 문화 산업 발전 협의회 등 중앙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며, 차생활지도사 양성 및 자격제도화, 학교 다례체험교육 활성화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일반인들이 차 생활의 활성화와 차 문화 상품, 관광 상품 적극적 개발과 다양화, 간편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기조강연에 이어 △박애자 전남과학대 교수의 ‘다도활동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공귀옥 조선대 교수의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차생활’ △서은주 한서대 교수의 ‘유아음악교육과 유아다례교육의 통합을 위한 창의성놀이 프로그램 모형개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청소년 다도 프로그램 등 제시
차 문화 관광 상품 개발 기대

특히 행사 주제에 맞춰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진행된 우리 차에 대한 교육사례들이 발표돼 큰 관심을 끌었다.

박애자 교수는 한국에 온 중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 효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의 차문화 느낌을 ‘담백’, ‘자연의 느낌’, ‘정중·차분함’, ‘예의 바름’이라고 느꼈다”며 “차문화 공유를 통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6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여연 스님, 조기정 목포대 교수 등 많은 차인인들 동참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공귀옥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간과했던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부족이 오늘날 폭력, 따돌림, 인터넷 중독, 자살 등의 생활 문제로 드러났다”며 “차생활 교육은 그동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론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전통적 인성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다례교육에 대해서 서은주 교수는 “현재 유아교육 과정에서 유아의 창의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창의성 다례놀이 프로그램으로 △양손으로 다례놀이 △이미지 다례놀이 △긴장이완 다례놀이 △오감으로 느끼는 다례놀이 △패턴인식 다례놀이 등을 유아교육과정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연 스님(백련사 주지), 조기정 교수를 비롯해 차(茶) 동호회 등 200여명의 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개최한 조기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차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중관유식 전문 승가대학원 출범

종단 최초로 중관유식 사상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승가대학원이 문을 연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중관유식승가대학원 모집을 진행하고 7월 1일 첫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승가대학원은 조계종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비구니는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필기와 면접을 통해 합격여부는 6월 27일 발표된다.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은 상주와 통학의 두가지 방법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말사 소임자 스님들도 입학이 가능하다. 학과과정은 〈대승기신론〉과 〈유가사지론〉 등이 진행된다.

중관유식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진우스님은 “유식학의 재조명과 현대심리치료학과의 소통적 연구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양사는 대학원 개강에 앞서 6월 1일 교육관에서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초빙해 ‘불교사상사와 수행론에서 본 유식학의 위치’ 주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안 교수는 이날 “유식(唯識)은 수행과 분리돼 있지 않으며, 부처님의 다양한 대기설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완전한 깨달음의 이르는 길을 체계화 한 것이 유식학”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천클럽,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높은 인기

전북 완주 3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은 6월 2일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13개국 350여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현대차 노조와 송광사, 금선암, 원경사 등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고국과 가족 곁을 떠나 기피업종에 종사하며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과 외로움을 달래는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민속극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 간단한 게임이 진행됐다.

또 레크레이션과 부채춤 등으로 푸짐한 경품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재활용 옷 1000여 점이 이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 한사랑 봉사단이 노동자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전북유일의 불교사회적 기업인 비사벌코리아 직원들이 봉사 도우미로 활동했다.

정용기 전주 천천클럽 운영위원장은 “낯선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선사 처영 스님 기리는 기념관 건립

6월 2일 김제 금산사에서 상량식 봉행


상량식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기념관은 약 200평 규모로 지어진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끈 뇌묵당 처영 대사의 호국불교정신을 기리는 ‘뇌묵당 처영대사 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이 6월 2일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주지 원행 스님, 남고사 원혜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승수 전북정무부지사, 이석봉 김제부시장, 최규성 국회의원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정조대왕으로부터 서산, 사명대사와 함께 구국삼화상으로 추존된 처영대사의 배례각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이번에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처영대사의 호국불교정신을 이어받아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관으로 정신문화 창달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량을 마친 뇌묵당 처영대사 역사문화기념관은 661㎡(198평) 규모로 전면 11칸 측면 5칸 일출목 다포(구량식)형식으로 건립된다. 금산사 측은 역사문화기념관 완공 후 서산, 사명, 처영대사의 구국삼화상 호국정신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과 사하촌이 함께하는 잔치마당

6월 1일 꽃피움절 산사음악회, 200여 주민 참여 성황



산사음악회에서 꽃피움절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구 밖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사찰과 사하촌이 함께 여흥을 즐기는 잔치가 벌어졌다.

광주 꽃피움절(주지 목언)은 6월 1일 광주 각화정수장 공원에서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Art-通 등과 함께 ‘피움의 소리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백양사 원응 스님, 목언 스님, 윤영선 더함 대표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바람, 들꽃, 여울물 소리, 길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문화초등학교 학생들의 댄스를 시작으로 오카리나 공연과 통기타, 플룻과 카온 연주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전남대 국악실내악단의 한국무용과 민요, 불자가수 주권기, 추억만들기, 전자바이롤린의 공연이 진행됐다.

목언 스님은 “작은 음악회이지만 참여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매년 2번의 음악회를 통해 마을 식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숭림사 유학생 한국불교 체험 진행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6월 1일 원광대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초정해 불교문화와 한국전통을 체험하는 자리를 열었다.

중국, 케냐, 가봉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 45명은 이날 행사에서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의 지도로 한국 전통사찰 건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우공양, 108참회, 참선, 걷기명상 등 수행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들은 예전에 용궁사가 있었다고 알려진 웅포 곰개나루 덕양정과 함라면의 삼부자 고택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가옥과 생활상,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지광 스님은 “유학생들의 한국불교 문화체험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학 후 본국에 돌아가 양국문화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유학생 강해언 씨는 “숲속에 자리한 산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 “108배와 참선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과 부모님, 나아가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국에서 온 장연 씨는 “중국에서는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 기회가 적었다”며 “발우공양은 매우 엄숙하고 생태지양적인 식사법 같다”고 말했다.

가봉에서 온 기슬라인 씨는 “108배를 하고나니 팔 다리가 아프지만 마치고 나니 매우 상쾌했다”며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숭림사는 평소 동남아 불교국가출신 노동자들의 법당인 사티법당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포교일환으로 5월 31일 음식문화체험관과 다도체험관인 향적당을 준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뷰 출가의식 지원
신뷰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뷰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